육성 법어

“여러분과 같이 살아 있는 겁니다” 되새겨

대행선사 추모글

“바람 불고 파도 일렁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혜지 스님 (한마음선원 시카고지원장)



1년 전 법체 거두시던 날 저는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절대 잠들지 않으리라, 늘 깨어있어 정진하리라. 모든 인연들 둘 아니게 품고 사랑하리라. 오직 공심으로 부처님 심부름 하리라.

그런데 하루해가 뜨고 지는 속에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일렁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스승님께 바쳤던 맹세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산정 실내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는데 당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겠다.” 어딜 가시는지 무얼 하시는지 모른 채 저는 무조건 휠체어를 밀며 뒤따랐습니다. 오직 지심귀명례, 감사 감사하고 발원 발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스님 뒤를 따랐습니다.

저희가 휠체어 붙잡고 일어서고 저희가 휠체어 밀며 걸을 수 있도록 스님께선 그렇게도 오래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까? 저희 모두 스스로 일어서고 저희 모두 스스로 걸을 수 있기를 스님께선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당신께서 걸으신 ‘길 아닌 길’ 걷는 자유인 되라고 그렇게 그렇게 가슴 가슴마다 크나 큰 자비의 유산 뿌려 놓으셨기에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바람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파도도 넘어서며 길 걸어갑니다.

언젠가 제게 필요한 말씀 해주십사 청하였을 때 스님께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주인공을 믿고 맡겨 놓으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스승이시여, 천만번도 더 들었을 이 법문이가장 깊은 곳에 화인(火印)으로 새겨져 천만번도 더 이 몸 일으켜 세우고 이 마음 살려내고 있습니다.

당신께선 당신의 평생 삶을 통해 당신의 일체 행으로써 증명하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남은 삶을 통해 저희의 실천 행으로서 천만분의 일이라도 증명할 차례입니까?

큰스님! 이렇게 한번 간절히 부르면 찾는 그 마음에 이미 대자비의 눈길로 함께 하고 계시는 당신은 영원한 스승이시니 저희는 단 한순간도 큰스님을 보내드린 적 없습니다. 오늘 원적 1주기를 맞이하여 한 시도 저희 곁을 떠난 적 없으신 스승님을 새롭게 다시 가슴에 모시며 제자 혜지 올립니다.



주지 혜원 스님이 대행 스님을 모신 각령전에 헌향하고 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대행 스님이 평소에 쓰시던 찻잔에 차를 담아 헌다했다.



대행 스님의 200여 제자 스님들은 스님의 1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오늘, 스님의 ‘한마음 법’ 법비로 내립니다”

대행 선사 1주기 추모 다례재…10일 안양 한마음선원서 봉행

사부대중 7천 명 동참

묘공당(妙空堂) 대행 선사의 1주기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이 5월 10일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들과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안양의왕군포사암연합회장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최대호 안양시장,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 사부대중 7000여 명이 대행 스님의 열반 1주기를 추모했다. 다례재는 인터넷방송 ‘유나’ 진행자인 정목 스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행 스님을 모신 각령전에는 제자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는 종사영반(宗師靈飯), 헌다, 헌향, 추모 편지글 낭독이 진행됐다. 이후 부도탑 건립 취지 및 조성 과정 영상 및 대행 스님 법문 상영과 추모 음성공양이 이어졌다.

종사영반은 조계종 영산재 이수자이자 어산장 비구니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이어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헌향(獻香)을,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이 헌다(獻茶) 했다. 대행 스님이 원적하기 바로 전까지 일생을 스님 곁에서 소임을 맡았던 혜수 스님은 대행 스님이 평소에 사용하던 찻잔에 맑은 차 한 잔을 담아 각령전에 올렸다.

이날 한마음선원 시카고 지원장 혜지 스님과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신도회장 한스욕 에플레(독일 베를린 의대 교수) 씨가 대행 스님을 추모하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한스욕 에플레씨는 독일어로 읽고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이 통역했다.

대행 스님은 원적했지만 불사는 스님 계실때와 다름없이 하나씩 완성 돼가고 있다고 정목 스님은 대행 스님 입적 후 지금까지 있었던 불사 소식을 전했다.

“2012년 11월 11일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새법당이 준공됐습니다. 대웅전은 최기영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등 시대의 명장들이 대거 참여해 현대 한국불교건축사에 다시없을 예술품으로 조성됐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포교에 힘을 실었던 대행 스님 뜻이 값진 열매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과학원에서 개발한 한나무인성교육프로그램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인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자살과 폭력, 왕따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국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열어준 대행 스님의 혜안에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대행 스님의 부도탑을 조성하게 된 동기와 취지 및 과정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영상에서 대행 스님은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해도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 계시면 그냥 여러분으로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달리 있다 이렇게 생각마시고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나도 여러분과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라고 법문했다.

대행 스님은 평소 출가제자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부가 돼라”라고 일렀다. 제자 스님들은 그 뜻을 새기며 지난 49재에 이어 올해도 선법가 ‘대장부’를 스님 영전에서 불렀다. 이어서 한마음선원 본원 선법합창단이 선법가 ‘자유인의 한마음’, ‘공무가’를 불렀다.

추모 다례재 마지막에는 주지 혜원 스님이 “오늘 모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짧게 인사말을 전했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행선사 추모글

“스님의 사랑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한스욕 에플레 (독일지원 신도회장)



한스욕 에플레(우) 교수의 추모글을 독일 지원장 혜진 스님이 통역했다.

15년 전 저희 가족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양본원에서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큰 행운을 만났습니다. 당시 네 살이었던 제 큰아들 모리츠는 스님을 처음 뵙던 친견실에서 일어나야될 때가 됐는데도 도통 스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모리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마치 하늘의 천사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열아홉살이 돼 독일에서 대학입시를 치루고 있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해 세상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어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들이 각자 내면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모두가 마음공부를 통해 영원한 참 자기를 발견해 진정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셨습니다.

1996년 스승님께서는 독일땅에 유럽을 향한 자비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손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만물만생을 조건 없이 안으시는 대행 스님의 무한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스님의 대자대비는 제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울리며, 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할 수 있는지를 저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독일지원 모든 불자들은 큰스님을 절절하게 그리워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예전에는 스님께서 안양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가 나고 힘이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니야, 스님은 계시잖아. 여전히 우리들 곁에,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잖아.’ 하는 뚜렷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영원토록 같이 걸어갑시다.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습니다."

무한한 자비심으로 영원토록 이끌어주시는 스승님, 대행 스님을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시며 정성을 다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石板 고려대장경 初版本 古佛 및 點眼 법회



삼보에 귀의하옵나이다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전국의 고승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은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옵니다.
저희들이 고려 팔만대장경을 석판본으로 조성하겠다는 발원을 하고
진행하여 온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시행해 오던 차에
지난해 드디어 완성된 표본을 조성하기에 이르러 각자(刻字) 제작소를 설치, 판각 조성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성보관 1동(棟)에 봉안할 만한 량의 석장경이 조성되어 그 초판본을 부처님께 고(告)하고
점안(點眼)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강호의 고승대덕 큰스님과
불자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법회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년 4월 8일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이사장 신상길 합장

일 시 | 2013(불기2557)년 6월 28일(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 고려대장경 석판본 제작소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 18-1
전 화 | 054)533-5670

석판고려대장경 초판본 견본
(세로 1m50cm 가로 78cm 두께 4cm)

탑으로 나툰 대행선사 가르침 '영원한 법등'


대행 스님 추모 다례재와 부도탑 제막식 사회를 본 정목 스님



대행선사 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대행선사 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는 가로 3m, 세로 2.1m, 폭 2.3이며 기초는 화강석이고, 탑의 원석은 경주석이다. 경주석의 특징은 단단하고 질기면서도 부드럽고 입자가 곱기로 유명하다. 미색이면서 약간 붉은 빛을 내어 따뜻한 느낌이 들고 하나의 통돌을 이루고 있다. 부도탑의 둥그런 구는 만공에 연꽃 피어 만 가지 향이 두루 함을 보여주며, 또한 이 구는 열매를 상징하며 꽃 피어 열매 맺으니 만 가지 맛을 내어 만 생명을 먹이고도 되 남음을 뜻한다. 주장자 기둥에 받쳐올려진 연꽃잎의 둥근 구가 돌아가는 모습은 무의법, 유의법이 둘 아니게 돌아가는 평등공법을 표현하고 있다. 한마음에서 일체가 들고나니, 한생각에 벌어지는 생명력을 싹으로 표현하고, 기단석은 하나의 원석으로 한마음을 뜻하는 전체 형상과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근본과 나툼이 둘 아닌 도리이다. 평등공법과 만공에 연꽃 피어 만 가지 향이 두루하는 끝없는 길을 사이 없이 걸으신 대행선사의 한마음 가르침을 그대로 조형한 이 탑은 대행선사 법의 화현으로 나투었다.


한마음선원 문도와 내빈들이 부도탑을 제막하고 있다.


많은 신도들이 서산정 다비터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대행 스님의 일상을 담은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됐다.

대행 선사 부도탑 서산정서 제막

대행 스님의 다례재 봉행 후 사부대중은 부도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행 스님의 다비식이 열렸던 '서산정'으로 향했다.

스님의 다비터에 새싹이 돋아나고 서산정에도 변함없이 계절이 흐른다. 스님의 뜻과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깊은 울림으로 전해진다.

이미 많은 신도들이 서산정에 도착해 다비터 주변을 둘러싸고 합장하며 서 있었다.

사부대중의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동희 스님이 제막의식을 집전했다.

이후 인환 스님, 원행 스님, 혜원 스님, 혜수 스님, 박재원 한마음선원 신도회 고문, 박종수 신도회장 등 문도 및 내빈은 사부대중의 "불 · 법 · 승" 선창을 따라 외치면서 부도탑을 감싼 천을 거뒀다.

사회를 본 정목 스님은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저 부도탑에도 돌옷(이끼)이 필 것입니다. 비문의 글씨도 흐릿하게 지워져 먼 훗날 세월이 지나 글씨를 알아보는 이가 적어진다해도 스님을 그리워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제자들과 신도님들의 마음만은 굳건하게 땅을 딛고 선 저 부도탑처럼 영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부도탑 비문에는 '마음 근본이 탑이 됨이라 고정됨이 없이 마음이 나투어 돌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향기로운 마음내어 만물만생에게 자비의 마음 뿌리리라 만공에 연꽃피어 향기 두루하니 만 생명이 더불어 공식하여지이다'라고 새겨졌다.

이후 다시 주지 혜원 스님이 헌화를, 혜수 스님이 헌향을 한 뒤, 대중이 함께 선법가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푸르게 살라'를 불렀다. 이어서 대중이 선법가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부르는 동안 한마음선원 국내 · 외 지원장 스님들이 탑주변을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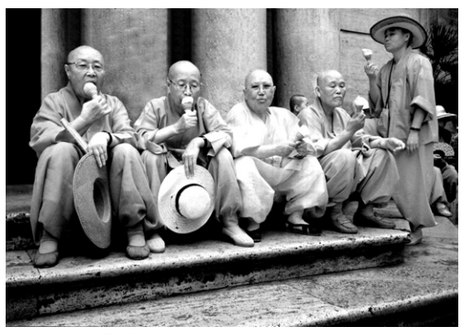
이정우 씨는 "이번 추모제를 치르면서 스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부도탑 보면서 기쁜 마음이 교차했다"라며 "스님의 법체는 가셨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소진 씨는 "1년 전 대행 스님이 원적하시던 때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스님이 안 계셔서 슬프기보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했다. 이제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서산정 뜰 안에는 대행 스님의 일상 모습을 담은 사진 100여점이 전시돼 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도들은 스님의 사진에 합장했다. 사진전은 5월 15일 까지 열린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행선사 사진전


미국 모건힐 대법회 후 농구공을 던지는 대행 스님


독일대법회 후 유럽여행중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큰스님들


수목원에서 스님이 개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2006.6.23)


원당 잔디 풀을 뽑는 대행 스님


서산정의 눈을 바라보시며 (2010)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봉 한 국 대 승 불 교 조 계 종 축

종 정 봉 진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종무원장 운고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대진 비구니총무국장 덕심

불 국 사(봉진) 운 고 사(운고) 불심정사(혜관) 백 련 암(문정) 지 장 사(영광) 동 방 사(법운)
쌍 암 사(덕산) 화 성 암(성화) 금 정 사(덕심) 불 현 사(대공) 갑 룡 사(해인) 극락정사(석도)
법 성 사(법룡) 용 연 사(취암) 약 불 암(혜각) 대 연 사(일화) 문 수 사(성묵) 태극선원(도일)
현 덕 사(대공) 금 강 사(금강) 약 샘 사(대진) 무량서원(무량) 미륵정사(혜월) 쌍 봉 암(쌍묵)
도 암 사(경담) 향 비 암(혜안) 미 정 사(운선) 법 광 사(태담) 천광정사(취운) 약 수 암(법륜)
미륵정사(미정) 내 원 암(혜인) 청 호 암(혜인) 개 남 사(해심) 범 굴 사(무법) 약 불 암(무여)
칠 성 암(사우) 칠 성 암(무설) 무 심 사(보명) 보우선원(성군) 당 포 사(종철) 천 자 암(무우)
보광정사(자공) 성 불 사

■ 총본산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50, 불국사 055) 521-1236 ■ 총무원 : 천광정사 055) 286-7766 ■ 사정원 : 불심정사 052) 275-5539